학교법인 창성학원

2025학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7	2

1. 회의일시: 2025.04.21.(월) 10:14-19:45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5.04.11.(금)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9명)

- 이사(6명): 강경래, 김대성, 김태근, 이정민, 임정섭, 성차용(직접참석)
- 이사(1명): 김조용(Zoom 화상회의 참석)
- 감사(2명): 조현준, 황인상(직접 참석)

□ 불참 인원(1명)

- 이사(1명): 김현리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5. 회의안건

가. 의결 안건

- □ 제1호: 법인 제규정 위원회 재구성 및 임명 동의(안)
- □ 제2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 □ 제3호: 중등학교 교원 임용(휴직, 복직 및 명예퇴직) 동의(안)
- □ 제4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
- □ 제5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학과 소속변경 동의(안)
- □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승진임용 동의(안)
- □ 제8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 임용 동의(안)
- □ 제9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휴직 동의(안)
- □ 제10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 제11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12호: 대전중앙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증자)(안)
- □ 제13호: 2024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제2차(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제14호: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 제15호: 2024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16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 제17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18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 □ 제19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 제20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21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 □ 제22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23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 □ 제24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 □ 제25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 제26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 변경 및 사용 계획 승인(안)
- □ 제27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본예산(안)
- □ 제28호: 교육용기본재산(차량운반구) 불용 및 폐기(안)
- □ 제29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 제30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 제31호: 2026학년도 대덕대학교 학과 구조조정(안)
- □ 제32호: 기준액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일부 처분(안)
- □ 제33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본예산(안)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 제34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본예산(안)
□ 제35호: 2024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제36호: 2024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나. 기타협의 및 보고 안건

□ 제1호: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변경 보고
□ 제2호: 2023학년도 대덕대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변경 보고
□ 제3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화해조서 보고
□ 제4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2차(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제5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2차(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5학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적 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 선언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5학년도 제2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보고 안건부터 상정하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하다.

(참석 이사) 동의하다.

다. 의결 안건, 기타협의 및 보고 안건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법인 제규정 위원회 재구성 및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다.

(이사 김태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검증이 불필요한 유치원, 중·고의 예산 처리는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고, 해당 안건은 금일 중 처리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문제가 없다면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안건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이신 것 같다. 안건 순서 변경에 동의하시는 이사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다.

(* 강경래, 김태근, 성차용 이사가 찬성에 거수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제1호 안건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한 임기 연장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제규정 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다.

(간사 윤지연) 대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를 연장하는 사항이고 중등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구성하는 안, 또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김 교장께서 교감이었을 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제청권자이시기 때문에 양 교감으로 변경하는 안이라고 하다. 법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임기만료로 변경되는 안이고 일반직원재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구성하는 안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심위원회는 2024년 2월 3일에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지금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간사 윤지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개회되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하였고 중간에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됐는데 시기를 놓쳐서 금회에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재심위원회는 참고로 법인 이사, 조교수 이상의 법대 교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회의자료의 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득하였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성 이사

(간사 윤지연) 우선 유선상으로는 위원직 수락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하다. 당초 성차용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빠지기를 요청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구성만 반대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이 교수가 왜 구성되어 있는지 묻다. 해당 교수는 폭행죄로 벌금을 7백만원을 부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질이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직에서 제외시키라고 말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지켜 본인에게 사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부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도 추가로 부결을 원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대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이 교수와 관련된 건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하다. 그 이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사 김태근) 재심위원회는 부결을 원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재심위원회는 왜 부결을 원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위원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반대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프로필을 참조 바란다고 하다. 아니면 기타 추천해주실 분이 있다면 추천을 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지금 추천해달라고 하면 하지 못한다고 하다. 공고가 나왔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이사 김대성) 공고는 무슨 뜻이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재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묻다.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결국은 임정섭이사장 측의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편이 어디 있는지 묻다. 그렇다면 추천을 해달라고 말하다. 성차용 상임이사께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분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말하다.

(이사 김대성) 재심위원회는 편을 갈라서 싸우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다. 재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후 처분을 한 뒤 구제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다. 법적으로 이것은 구제 절차로써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하다. 재심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고 재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재심신청이 들어왔는지 묻다. 들어왔는데도 왜 상임이사인 본인은 알지 못하냐고 묻다.

(간사 윤지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이사 김대성) 재심 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재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다. 구제 절차인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임정섭 이사장 편에 있기 때문에 재심위원 구성을 거부한다면 성차용 상임이사 편의 위원들로 구성하시라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성　　재심이 들어왔는데 본인에게 재심위원회 위원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위원 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기피 또는 제척을 하면 된다고 하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추천한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태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살펴본 후 허락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다. 2024년 2월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재구성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계속 이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고 이사회가 됐을 때 살펴서 재심위원회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불찰도 있다고 하다. 이번에 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다. 특히 재심위원회는 현재 재심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절차를 밟지 못한다고 하다. 위원회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위원을 변경하셔도 좋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지금은 못하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상임이사와 상의를 했다고 하다. 이사님께서 위원으로 들어 오셔서 논의 해달라고 했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이사장과 상의한 적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제규정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재심위원회 변경구성은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하다. 이것은 재심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이사님들께서 다 들어가셔서 위원회를 진행하시라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설득하지 말고 표결을 하라고 말하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다. 대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추후에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하여 안건이 부결되어 재심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다고 하다. 징계처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의 임기가 도과가 되면 빨리 재구성을 했어야 했다는 것은 맞지만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이라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책임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서 의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한 분씩 설명하겠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10:32에 회의장을 퇴실하다.)

(이사 성차용) 기권하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권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이사 성차용) 이유 없다고 하다. 기권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상임이사께서는 지난 주에 중등학교에 방문하여 오늘 이사회에서 중등학교 예결산만 처리 해주시겠다고 발언하였는지 묻다.

(이사 성차용)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예결산만 해준다는 것은 나머지 이사들은 두고 세 분이서 결정하시는 것이냐고 묻다.

(이사 성차용) 의결을 유도하지 말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이사회가 합의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재심청구가 들어와서 재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묻다.
(* 김태근 이사가 10:34에 회의장을 입실하다.)

(이사 김대성) 대체위원까지 놓고 논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금 추천이 가능하며, 이사들도 모두 자격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는 항상 찬성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의결을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해결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대성)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데, 어떤 것은 허락을 해주고 어떤 것은 허락을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다. 위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고 그 자격대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다.

(이사 성차용) 판단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리고 항상 네 명은 참석했다는 말이 맞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거의 그랬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김대성 이사 건이 생겼을 때 왜 다들 오지 않으셨는지 묻다. 이사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고 김조용, 김대성, 이정민 이사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다. 긴급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참석 및 불참이사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보여주기 위함이냐고 질문하다.

(이사 김대성) 긴급안건이니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다.

(이사 김태근) 김대성 이사 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를 계속 요구했으나 그 건은 기피를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다. 이사회는 4명의 이사가 요구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왜 개최를 하지 않는지 기피사유가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다음 규정 조항을 보면 기피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부터 제36호안 2024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일괄상정하다.

(이사 김태근) 왜 일괄상정 하는지 묻다. 이사회를 파행시키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것이 왜 파행이냐고 묻다. 해당 안건은 수차례 상정되었던 안건이니 일괄 상정하겠다고 하다. 순차적으로 설명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다. 우선 정식 안건 제2호, 제3호 안건과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3호 안건을 함께 설명 듣겠다고 하다.

(* 일괄상정한 것에 대해 일괄로 의사봉을 두드린 것으로 김태근 이사가 착각하여 의장 옆에 있던 의사봉을 뺏어가다. 전체 안건을 논의 후 맨 마지막에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의사봉을 반환하다.)

(간사 윤지연) 제2호 안건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다.

(이사 이정민) 신규임용이 되면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인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존의 다수가 기간제 교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정규교사로 일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이정민) 신규 인력이 채용되더라도 부족 인원이 있는지 묻다.

(간사 윤지연)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원만큼 채용하는 것이며, 신규임용이 되더라도 부족한 인원은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합격자를 이사회 의결 없이 발표해도 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합격자 발표는 가능하다고 하다. 2024학년도 제3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발표까지의 과정이 모두 심의의결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2024학년도 제3회 이사회 제11호 안건 심의 중 이정민 이사께서 합격자의 결정 방법은 조정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의견을 주시면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다. 원안은 1차, 2차는 교육청 위탁이고 3차는 법인 자체 면접이라고 했다고 하다. 이것이 회의 내용이고 3차 이후 이사장이 혼자 발표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니 교육청에 준 점수 그대로 점수표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교육청에 위탁을 하면 1차의 경우 전공점수와 교육학 점수를 포함하여 1차 점수가 산출되어 3배수를 뽑았고 국어 교과의 경우 2차 합격자 발표가 6명이 되어야 하는데 최초에 2명이었다고 하다. 이후 7명을 발표했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중등교원 신규임용 과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 최보경 직원이 배석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 김대성) 본인이 교육청 근무할 때 채용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다. 교육청의 경우 1차 100점, 2차 60점, 3차 40점으로 총 200점으로 산정한다고 하다. 사립학교에서 위탁할 시 1차는 100점 기준, 2차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데 교육청 기준의 환산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다. 이 경우 만점을 맞아야 60점인데 우리 법인 과락 기준에 의하면 인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맞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청에서 60점을 준 것은 맞다고 하다. 이번에 처음 제2차 전형을 위탁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하다. 제1차 합격자 중 사립을 지원한 자를 우선선발하고 국공립지원자를 이후에 선발한다고 하다. 제2차 합격자 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산식이 적용되어 100점만점 기준으로 환산되었는지 궁금하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어있다고 하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동점자 처리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적용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국어에서 6명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7명이 발표되었다고 하다.

(배석 최보경 직원)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당초 계획 공고에 동점자는 전원 합격 한다 라고 공고했었고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동점자를 처리했다고 말하다.

(이사 김대성) 절차를 거쳤는지 묻다.

(배석 최보경 직원) 그렇다고 답변하다.

(이사 김태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한 사람의 이름을 묻다.

(이사 김대성) 이곳은 감사장이 아니고 심의하는 장소인데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이정민)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설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묻다.

(배석 최보경 직원) 계획 안 자체는 2024학년도 제3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하다. 또한 내부 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위원회에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였을 것이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의결과 부결의 의견을 내자고 하다. 본인은 부결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2차까지 교육청에 위탁하고 법인은 점수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2차 시험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다. 다만 2차까지의 점수를 가지고 3차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므로 3차의 절차가 잘못된 지를 따져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채용 비리라고 생각하며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은 부결의 의견을 낸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3차 면접 위원은 몇 명인지 묻다.

(배석 최보경 직원) 면접위원은 총 다섯명이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면접위원의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묻다.

(배석 최보경 직원) 교육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2명은 외부위원, 2명은 각급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2차 성적에 대해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이 맞는지 묻다.

(배석 최보경 직원)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동점자가 다른 과목에도 있었는지 묻다.

이사 양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성차용) 다른 교과 말고 국어만 말하자고 하다.

(배석 최보경 직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합격한 동점자는 2명이었는데,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 동점자가 있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1차와 2차에서 꼴찌를 한 사람 중에 7명이나 면접에서 합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최종합격자 결정 시 1차 성적 10%, 2차 성적 20%, 3차 성적 70%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는지 묻다.

(이사 성차용) 누가 정했는지 묻다. 본인은 모른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하다.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다.

(배석 최보경 직원)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정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통상적으로 사립학교는 1차만 교육청에 위탁하고 2차는 자체시험으로 처리하거나 또, 최종합격자 결정시 1, 2차 성적은 무시하고 3차만 가지고 결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다. 우리 법인은 1, 2, 3차를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다.

(이사 이정민) 이 분들이 오래 기다렸다고 하다.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합격자 분들이니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하며 자료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의견을 밝힌다고 하다.

(이사 강경래, 성차용) 부결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어떤 의견인지 알았으니 자료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다. 다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겠다고 하다. 제3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윤지연)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3호 안건을 설명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전 체 이 사) 동의의사를 밝히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3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윤지연 과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3호를 설명하다.

(이사 김대성) 화해 내용에 대해 묻다.

(간사 윤지연 과장)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것은 내용은 속이는 것이라고 하다. 1월 13일에 성 이 복직되었고 1월 14일에 직위해제 했다고 하다. 이후 2월 1일에 대학으로 전보되었고 3월에 이사장께서 단독으로 화해조정 했다고 하다. 화해조정 내용은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 급여를 그대로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다. 현재 부총장 자리는 없는 상황이고, 사무국장은 이 이라는 사무국장이 존재한다고 하다. 이 상태에서 화해 조정을 했고, 화해 조정에 따라 가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화해 조정 상황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행정부총장 직을 요청한다고 들었다고 하다. 하지만 정관에 행정부총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정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다. 앞으로 정관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고 수용하는 취지라고 했고 이사회에서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등 사전작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책임을 지라고 하다. 본인은 정관개정을 못해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4월 28일까지 부총장으로 임명한다고 화해조정을 했다고 하다.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 묻다. 임정섭 이사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정관 개정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직을 부여할 수 있고, 안된다면 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인데 상대측에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다.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 사이에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하다. 해임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라고 하다. 그리고 화해조서에 적시된 대로 정관 개정을 통해 진행되면 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상대측이 이로 인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이사장께서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책임지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화해조정과 징계절차는 각각 별건이라고 말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제3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화해조서 보고: 보고완료

피신청인(성)과 사용자(학교법인창성학원)의 화해조정 내용에 따라 향후 이사회에 정관개정의 안건상정을 통해 화해조정 내용을 다루기로 함.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30호 및 제31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대덕대학교 한규진 교무처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30호 및 제31호 안건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다.

(이사 성차용) 신규임용 후 예산이 없으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묻다. 교원확보율이 얼마인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 편제정원 기준으로는 46.3%이고 재학생 기준으로는 69%라고 답변하다.

(이사 성차용) 그렇다면 교원확보율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는 편제정원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다. 4주기 기관평가인증 기준으로는 재학생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지만 본교에서 맞추는 기준은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고등교육통계 등 여러군데 자료를 가지고 맞추고 있다고 하다. 가장 절대적인 것은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맞다고 하다. 하지만 재학생 기준은 대학의 어

려운 사정을 감안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편제정원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신임교원 채용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하다. 이사회에 올려야 하지 않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원확보율은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46.3%가 맞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사 김대성) 전임교원확보율이 편제정원 기준인지, 재학생 기준인지에 대해서 4주기 평가를 할 때부터는 학교가 어려우니 해당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논의 중에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이 될 것을 알고는 있다고 하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자 기준 정보공시에는 두 수치에 대해 모두 올리고 있고 이 6명의 대해서는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득했다고 하다. 2년제 과정이 3년제, 4년제로 학사과정이 되기 때문에 교원확보율이 증가되므로 해당 인원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심화과정 진행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전공심화과정을 위해서는 그 운영학과는 대학은 50%, 해당학과는 60%를 맞추어야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종전기준으로는 50%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못 맞추고 있고 4주기 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편제정원 기준인지, 재학생 기준인지는 논의 중이며 전공심화 운영을 위해서는 60%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우리 대학은 2026년까지 기관평가인증 되어 있고, 2025년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다. 평가원에 유선 통화를 한 결과 3주기와 4주기의 지표는 동일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당 내용은 2024년 9월에 발표가 되었다고 말하다. 전임교원확보율이 재학생 기준인지 정원기준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재학생 기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전공심화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0%인데 이것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 전공심화를 운영하는 학과는 모집정지가 되고 신규진입이 막히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자료를 보여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전임교원확보율이 60%가 되지 않으면 모집정지가 된다는 근거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2026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이 결정되었는지 묻다.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공청회를 진행했고, 대학평의원회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평의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출직인데 임의로 의원 해촉이 가능한지 묻다.

(이사 김대성) 평의원회는 선출하면 총장이 위촉하게 되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그렇다면 해촉은 누가 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해촉 사유에 총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지 묻다. 교무위원회에서 평의원을 해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교무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은 심의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학과 소속변경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작년에 이루어진 학과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2025학년도 학과 신입생을 뽑아 소속 변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부결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본인도 부결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강경래) 부결이라고 하다.

(이사 이정민) 가부결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이것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학교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듣고 또 꼭 부결해야하는 상황인지를 보고 판단해 주기를 당부하다.

(이사 김태근) 신입생 선발부터 문제이고 재학생이 유지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하다. 저번에 70% 정도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예산통과를 했다고 하다. 하지만 현재 신입생 및 재학생 유지율이 늘어난 것이 없다고 하다. 현재 새로운 교수를 뽑거나 새로운 것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기조로 안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전임교원 재임용 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통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먼저 선 통보 후 추인하는 건이라고 하다. 이사회를 하지 못한 우리의 귀책사유이지 대학이나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다. 이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과거에는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으로 넣으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재임용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하다. 2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지만 하지 못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비정년트랙 두 명의 계약연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조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4년 단위로 재임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최초 임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4개월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하다. 그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계약 연장을 위해 자료에 껴넣은 사항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당시에 성차용 이사께서 총장님이 새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로 부임하셨으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문구도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약연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어야 한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4개월 연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다. 2년 계약인데, 4년 계약으로 해주기 위해서 꼼수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묻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기만하고 농락하면 안 된다고 하다. 4개월 연장을 한 이유를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 , 배 교수는 2022년 9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사회가 계속 파행되어 오다가 극적으로 그 해 12월에 이사회에 개최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작년 4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용기간 연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9월 1일자로 재임용 평가를 진행해서 재임용을 했으면 될 문제라고 하다. 계약서를 제공해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미 의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다. 제6호 재임용 동의(안)의 김 , 배 교수의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재임용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장께서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다. 계약서를 요청한다고 하다. 그리고 승진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승진 대상자가 각 1명밖에 없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대상자가 9명이었고, 2022년 3월 이후로 승진임용이 없었다고 하다. 전임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말하다.

(이사 성차용) 찬성한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권 교수께서 임금소송을 진행 중이 아닌지 묻다.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전·현직 교직원 17명이 임금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임금소송의 결과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전체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이사 김태근) 제30호 안건은 반대한다고 하다. 형평성에 따라 이사님 중 한 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결과가 나왔는지 묻다.

(이사 성차용) 이 교수는 벌금 7백만원, 박 교수는 벌금 2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학교로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에 그 결과가 도달한 것은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결과 나온 이후에 다시 올리자고 하다.

(이사 이정민) 확정 전이라면 확정 후에 진행하자고 하다.

(이사 김태근) 기소가 되어도 법인에 책무성에 걸리게 되고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니 이 분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학과 구조조정에서 폐과가 예정되어 있는 학과는 작년 신입생이 0명인 학과를 폐과하는 것인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반도체과, 워게임과가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고 드론로봇과는 전기전자제어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학과구조조정은 평의원회를 거쳤는지 묻다. 평의원회 의장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진행해서 올리라고 하다. 편제인원도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이사 김대성) 평의원회 의장은 외부위원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평의원회 의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다.

(이사 성차용) 박 교수가 평의원회 의장인데 마음대로 해촉했다고 하다. 의장은 박 교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박 교수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니, 해당 교수가 평의원회 의장을 하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의원을 해촉하게 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평의원회 규정에 의원을 해촉하는 규정이 있는지 묻다. 규정을 요청하다.

(이사 성차용) 구조조정을 다시 해왔으면 좋겠다고 하다. 입학정원은 900명대로 줄였으면 좋겠고, 작년에 신설했다가 모집이 되지 않은 학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다. 대책이 없다고 하다.
(* 법인사무국 윤지연 과장이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제공하다.)

(이사 김태근) 제3조의 규정이 해촉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말씀하신 규정의 제3조 구성 및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다. 평의원회 의장으로서 계속해서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하게 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해촉의 사유가 무엇인지 묻다.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모든 내용을 규정에 열거할 수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평의원회 의원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총장이 해촉할 수 있

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의원 해촉에 관련해서는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서류나 규정에 없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다. 발전계획 등이 평의원회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의원이 왜 해촉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의원 해촉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말하다. 총장은 의원 위촉의 권한이 있다고 하다. 의원이 활동을 못하면 절차적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배석하신 교무처장께서는 이사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준비해주기를 요청하다. 감사 두 분이 참석 중이신데 예결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기 전 감사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 한규진 교무처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감사 조현준) 내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다. 다만, 전국교수노조 대덕대학지부에서 개인에게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이사장 수당과 관련하여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법인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소정의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이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장 수당이 발생할 때 마다 지급받을 수 없기에 월에 한번 지급받고 있고, 이사께 지급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답변하다. 10회 이상 법인에 나오더라도 10회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을 정해 내부결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다.

(감사 조현준) 문자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세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면 세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 윤지연 간사가 조현준감사 및 김태근이사에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세칙을 제공함. 조현준감사와 김태근이사는 해당 규정을 살펴보다.) 세칙에 회의비를 천만원으로 정하면 가능한 것인지 묻다. 사립학교법에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람은 실비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이사장님은 겸직이고 비상근인데 10회 이상 출근하실 수 있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10회 이상도 출근한 적이 있다고 하다. 네분 이사가 이사회를 나오지 않아 법인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할일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으며, 정당하게 일을 해서 출석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정당하게 근무했다면 그것이 급여라고 하다.
(* 조현준, 황인상 감사가 각 학교의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실을 12:26에 퇴장하다.)
(* 전체이사 동의 하에 12:26에 정회하고 14시에 속회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전체이사 동의 하에 14:09에 속회하다.)
(* 대전중앙고등학교 이래혁 행정실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이래혁 실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4호 안건을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보조금 반환의 이유를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목적사업비로써 자투리 금액이 남아 반환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이사 김대성) 학교시설 확충의 최종 예산액은 얼마인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최종 예산액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체육관 준공이 완료되었는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준공이 완료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사 김대성) 교육청에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이 관항목 별로 배분이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무엇이 있는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없다고 하다. 모두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다고 답변하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모든 학교가 정해져있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대성) 시설비의 총 경비가 있고 그 안에서 전기, 기계 등은 세분화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해주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올해 공사 계획이 있는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올해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현재 준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그렇다고 하다. 교육청에서 우리 법인 3개 중등학교에 지도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도 준예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다. 인건비,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을 하고 회의비 등은 집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작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이어지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다. 학생들 수학여행, 선생님 방과 후 수업 시 경비 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냐고 묻다.

(배석 이래혁 실장) 수학여행을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 사건사고의 위험도 있어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확인해주시고,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대전중앙고등학교 이래혁 행정실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4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2차(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보고완료**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단위: 천원)

예산구분	2차추경 예산액	1차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10,182,207	9,762,510	419,697	4.3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송성환 실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송성환 실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안건을 설명하다.

(이사 김대성) 고등학교도 이사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간주 추경을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하였는지 묻다.

(배석 송성환 실장) 그렇다고 답변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대전여상은 준예산 편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다.

(배석 송성환 실장) 학교 특성 상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이사회 통과 후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잠시 미루고 있다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예산액이 줄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묻다.

(배석 송성환 실장) 학교 학생 수의 감소와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라 해당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말하다.

(이사 강경래) 한 학급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한 학급이 몇 명인지 묻다.

(배석 송성환 실장) 20명 내외로 알고 있다고 하다.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송성환실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대전중앙중학교 박은희실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박은희 실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16호, 제17호 및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5호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 김조용) 중학교 학생 인원이 학년별로 몇 명인지 묻다.

(배석 박은희 실장) 1학년 112명, 2학년 82명, 3학년 84명으로 총 278명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1학년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묻다.

(배석 박은희 실장) 원래는 3학급이었는데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학급 28명이 늘어나서 112명이 되었다고 하다. 과거에는 구도심이었다가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아파트 방문을 통한 안내와 교육청에 학급 증설의 필요성 등의 홍보를 진행하여 도출한 쾌거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원심리회복 관련 사항은 어떤 때에 집행하는지 묻다.

(배석 박은희 실장) 학교 수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교사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대전중앙중학교 박은희 실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5호. 2024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2차(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보고완료

(단위: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2,874,843	2,849,014	25,829	0.9

(* 대전중앙고등학교 이래혁 실장이 안건 추가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이래혁 실장) 확인결과 2024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18억 8천 8백만원이며, 기타 금액인 22억원은 명시이월 금액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예산현액이라는 말에 전년도 이월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전용 다 포함시켜서 예산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표기를 해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선 이사

(이사 김대성) 비고란에 예산현액에 이월액이 잡혀있다고 표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표식 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법인에서도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하다.
(* 대전중앙고등학교 이래혁 실장이 안건 추가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김청환 과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김청환 과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18호, 제19호 및 제20호 안건을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신규임용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하신 것 같다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묻다.

(배석 김청환 과장) 유치원은 별도의 위탁 절차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적립금이 얼마나 있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과장) 적립금은 없고 결산 결과 이월금 1억 3천 정도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차입금에 왜 2천원이 편성되었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과장) 과목존치를 위해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을 각 1천원씩 편성하였다고 답하다.

(이사 김조용) 예산항목 보다 세출항목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묻다.

(배석 김청환 과장)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세출이 세입대비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정리 추경을 하여 지출액이 많지 않도록 결산을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 김청환 과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 김형진 원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배석 김형진 원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21호 및 제22호 안건을 설명하다.

(이사 김조용) 어린이집 연령별 인원은 몇 명인지 묻다.

(배석 김형진 원장) 0세 7명, 1세 5명, 2세 14명이라고 답변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원아가 많이 줄은 것 같다고 하다.

(배석 김형진 원장) 작년대비 17명이 줄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졸업하고 유치원으로 입학한 인원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형진 원장) 0~4살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4살 졸업하는 친구들이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부속어린이집 김형진 원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대덕대학교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및 제27호 안건을 설명하다.

(이사 김태근) 재정지원사업단 신설이 되면 직원을 새로 뽑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5% 정도에 대해서는 먼저 직원을 채용하고 추후에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라이즈 사업은 단위과제별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혁신사업단의 사업이 무엇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선지원후평가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된 내용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전 라이즈 사업과는 차별화된 교육혁신,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자율혁신으로 총 네가지의 혁신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이사 김태근) 혁신사업과 라이즈사업은 별개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다. 지역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혁신은 교육과정이나 학생지원체계에 대한 내용, 라이즈는 지자체, 산업체, 지역과 대학과의 협력을 묻는 사업으로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사 김태근) 두 꼭지의 사업인 것 같다고 하다. 혹시 신청한 것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선지원후평가 사업은 4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라이즈 사업의 경우 3월 31일에 제출했다고 하다. 최종결과는 4월 25일에 라이즈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기획처나 부총장 직속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라이즈 사업의 경우 총장 직속 기구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하다. 대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장이 직접 컨트롤해서 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정지원사업이 선정 되더라도 50억 미만일텐데 2030발전계획에 보면 2025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맞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현재 계획 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하다.

(이사 김대성) 단장하고 센터장 두 기구를 두게 되어있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이 사업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직원을 쓰게 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은 얼마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목적사업이니 지자체가 대학과 지역정주인력을 양성하는데 대학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다. 지자체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체는 정주 인력을 사용하는 지역 정주형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비로 사용할 지출 금액을 이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태근) 이 사업으로 뽑은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사업이 존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이 사업이 존속되는 조건으로 채용한 인력이므로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번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1차년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장 직속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다. 사업단을 빨리 구성해서 혁신사업단과 라이즈사업단을 배치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묻다. 반환해야 되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1차년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고 2차년도 사업에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그러면 채용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1차년도 사업만 진행하고 퇴직해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정관개정을 꼭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 직속기구로의 배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해당 공문이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라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임명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현재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하고 있으며, 혁신사업을 위한 직원 1명, 라이즈사업 진행을 위한 산학중점교수를 채용했다고 하다.

이사 임 정섭 이사 김 대성 이사

(이사 김태근) 절차적 하자로 생각하는 것이 평의원회 의장이 있었는데 해촉이 된 상황이 있다고 하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2024년 12월 23일에 당시 의장에 처음으로 발전계획 심의를 위해 평의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하다. 당시 의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12월 말에 의견 수렴을 한차례 더 실시했다고 하다. 그 이후에 소집요청을 하였는데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선별적으로 심의안건인 중장기발전계획은 상정하지 않고 자문안건인 예산안만 상정하였다고 하다. 평의원회 규정 상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4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해촉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촉할 수 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해촉의 당연사유에 대해 평의원회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다고 하다. 하지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했으나 의장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해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 분을 해촉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해고수당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묻다. 해고수당이 법인에서 나가야되는지 대학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확인해보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적립금이 그러면 얼마나 남았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109억 남았고 본예산이 편성되면 4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사업 2건, 국제협력단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67억을 다시 적립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대성) 67억 중 임의건축기금 16억, 임의장학기금 7억, 임의특정목적기금 44억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나머지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고 우리가 44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다. 라이즈사업, 혁신사업, 국제협력단의 수입이 창출이 되면 최대한 44억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다. 5월 이후에 사업비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다.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면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얼마나 썼는지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적립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작년에 58억을 사용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을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는데 우리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하다. 등록금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회계에서 하고, 적립금에서는 약 20억 범주 내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109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67억을 사용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다. 긴축재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예산편성은 이렇게 쓴다고 해야 편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다. 외부의 사업 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쇄되는 것 만큼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다. 여러 차례 추경을 거쳐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라이즈사업과 혁신사업으로 들어올 예산이 얼마정도로 추정하는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라이즈사업은 48억 7천을 신청하였으나 25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선지원후평가 사업은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너무 적은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다.

(이사 김대성) 우리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거나 신규로 설립되는 대학이 총 18개 대학인데 기존 대학과는 구분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최대로 해도 약10억 정도인 것 같다고 하다. 새롭게 진입되는 학교는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다.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이사 김조용) 그렇다면 대략 40억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행지침을 많이 완화시켜 일반적인 교비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중이라고 하다. 적립금에서 많이 쓰더라도 10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국제협력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적립금을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67억 중에 적립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는 묻다.

(이사 성차용)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다. 계약직, 조교 채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채용하고 있는지 묻다. 구조조정해서 폐과시키고 해당 인원들을 행정직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다. 4~5년을 버티려면 20억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예산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편성할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임의건축기금, 장학기금은 사용하고 임의특정목적기금 44억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다. 44억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앞으로 리모델링 하지 말고 긴축해야될 것 같다고 하다. 입학과 취업을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20억 이상은 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비환원율, 재학생유지율, 장학금지급율, 전임교원확보율 중 재학생과 신입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다.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평균이 60%대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전공심화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학교차원에서는 50%, 학과 차원에서는 60%라고 하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전공심화 모집학과의 전임교원확보율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을 충족하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지 못하면 전공심화 모집정원의 10%를 감하게 되어 있다고 하다. 이러한 행정적 재제를 받게 되면 기관평가인증의 책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44억 중 20억에서 25억을 쓰게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고 하다.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임금삭감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 총장직무대리도 임금 삭감을 진행했는데 정식 총장이 왜 못하냐고 하다.

(이사 김조용) 적립금의 숫자는 활용하되, 적립금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이사 김태근) 교원 보수가 69억이라는 의미인지 묻다. 또한 등록금수입은 얼만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등록금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2차 추경 기준 101억 정도이며, 평생교육원등의 단기수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재학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약86억원 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등록금 수입 86억 중에 교원보수가 69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다. 대학 총장이 교원 보수가 들어가는지 묻다. 총장 월급은 이사회 의결을 받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총장의 급여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다. 총장의 보수는 총장님의 경력을 산정하고 이전 총장들의 보수 등도 살펴서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하다. 그 당시에는 상임이사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과 논의한 사항은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 때는 2억을 넘게 주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수행 직원도 채용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논의한 적 없다고 하다. 임금 삭감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임금 삭감은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않냐고 하다.

(이사 성차용) 조교, 계약직 다 없애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정관 개정과 관련한 근거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다.

(* 대덕대학교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전체이사 동의 하에 16:12에 정회하고 16:35에 속회하다.)
(* 대덕대학교 여태성 행정처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제28호, 제29호,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1호 및 제2호 안건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다.

(이사 강경래) 연식을 보아서는 진작 처분했어야 한다고 말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열악한 환경이라 당연히 폐기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결산과 관련하여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는지 묻다. 총장 차량 보조비 나간 것이 있는지 확인하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2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차량운영비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다.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기부금이 있던데 임정섭이사장이나 김대성총장이 있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런 것은 왜 질문하시는지 묻다. 그러면 김태근이사도 기부금을 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본인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발전기금 얼마나 있는지 묻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총액규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성 이사

(이사 성차용) 발전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부금과 발전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발전기금도 기부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업무용차량 관리 규정을 제공받다.)

(이사 김태근) 업무용차량 관리 규정이 2024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지 묻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그 전에는 총장의 관용차가 있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무제표 수정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인지 묻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그렇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안건의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 여태성 행정 처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1호. 2022학년도 대덕대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변경 보고: 보고완료

가. 회계기간: 2022.03.01. ~ 2023.02.28.
나. 총액 변경 내역
(변경 전) 85,149,829,427원 (변경 후) 84,673,197,057원
(차 액) 476,632,370원
다. 내용
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간의 내부거래제거 반영
⇒ 비등록금회계 건물(정곡관,인문사회관 엘리베이터)을 등록금회계 건물(정곡관, 인문사회관)로 이관 (2021년도 사학진흥재단 감리결과 지적사항 반영)
※ 내부거래제거 금액: 476,632,370원

★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제2호. 2023학년도 대덕대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변경 보고: 보고완료

가. 회계기간: 2023.03.01. ~ 2024.02.29.
나. 총액 변경 내역
(변경 전) 76,273,615,709원 (변경 후) 45,850,229,361원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성 이사

(차 액) 30,423,386,348원

다. 내용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중 감가상각누계액(부채와기본금)은 각 유형고정자산(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 작성 함
(2023.5.31.개정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반영)
※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합계: 29,946,753,978원

②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간의 내부거래제거 반영
⇒ 비등록금회계 건물(정곡관,인문사회관 엘리베이터)을 등록금회계 건물(정곡관,인문사회관)로 이관 (2021년도 사학진흥재단 감리결과 지적사항 반영)
※ 내부거래제거 금액: 476,632,370원

(* 한규진 교무처장이 16:55에 이사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재배석하다.)

(이사 김태근)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대학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의 환경을 활용하여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학과가 커나가는데 문제가 되고, 4년제 대학에 비해 뒤쳐지게 된다고 하다.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일반대학으로 유출될 수 있는 학생을 막고 유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전공심화 과정을 만들었으나 추후에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입학생들은 몇 명인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대학의 발전방향 상 전공심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다. 신규로 모집하는 학과는 자동차학과, 외식조리, 경찰행정, 뷰티과가 있고 기존에는 사회복지, 정밀기계공학, 총포광학과로 총 7개 학과라고 하다.

(* 한규진 교무처장이 퇴실하다.)

(* 학교법인창성학원 관리처 김청환 직원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김청환 직원)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및 제36호 안건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다.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이사 성차용) 가장 크게 들어갈 것이 어떤 항목인지 묻다.

(배석 김청환 직원) 2025학년도 회계 내에 산하학교로 전출하는 법인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소송비 등이 있다고 말하다.

(이사 성차용)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 지출이 가장 큰 것이 아닌지 묻다.

(이사 김태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임금소송 등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소송비용이 1억이나 되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직원) 예측비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것과 질 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법인 임직원 임금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급여가 왜 들어갔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사무국장이 있으니 사무국장 급여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다.

(이사 김태근) 행동강령 제7조에 걸리기 때문에 가족은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하다. 사무국장이 급여를 받고 있지 않냐고 하다. 계약서를 제공해달라고 하다. 그리고 성 사무국장 급여가 나갔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성 전 사무국장은 대학 소속이라고 하다. 대학으로 전보해서 대학 소속 직원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지 않았냐고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간사 윤지연) 성 전 사무국장이 직위해제와 전보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취하로 종결이 되었으며 그 이전에 충남지노위에 제기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화해조정이 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급여를 받지 않냐고 하다. 대학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이 맞냐고 묻다. 대학에 소속이 없지 않냐고 묻다.

(이사 김대성) 대학으로 소속만 옮겨진 것이고 직위는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이 사무국장이 왜 급여를 받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현재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사무국장 계약서를 달라고 하다. 현재 사무국장은 없으니 사무국장 급여는 제외하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서류를 제공해달라고 하다. 10억 처분은 보류한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2억 5천에 대한 산출금액을 요청하다.

(이사 김대성) 법정부담금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전체를 모두 삭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2억 5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져와 달라고 하다. 예금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 법인예산으로는 어려운지 묻다. 차량유지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직원) 법인 관용차를 말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도 있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직원) 있다고 하다. 그 부분은 미수금 처리는 하고 있고 장기 미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다. 소송비용은 용역 또는 전자소송 등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태근) 상임이사 및 사무직원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상임이사의 보수 인상과 사무국장, 필요시 자체직원의 인건비를 넣어놨는데 줄여도 괜찮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사무국장 약 4천만원, 상임이사 약 7천만원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사무국장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사무국장을 이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삭감을 원하시면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내면 좋겠다고 하다. 국가기관이나 관할청에서도 당사자의 급여에 대해 각각 예산서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실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사무국장 보수, 사무국장 직책수당, 건강보험 2인 중 1인, 대학 소송비 전출,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소송비 전출 등을 삭감하기를 제안하다. 더불어 이사장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기를 요청하다.

(이사 김대성) 실비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실제 사용된 금액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실비를 정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묻다. 정관시행세칙에 의하면 출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비상근 이사장은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다. 실비가 수당이 아니라는 정의가 어디 있냐고 하다.

(이사 성차용) 성 전 이사장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실비 개념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얼마씩 총액으로 주었기 때문에 급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실비 지급을 받았다는 심 전 이사장, 김 이사장직무대행과 임 이사장은 모두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태근) 법인 차량은 별다른 지침은 없는지 묻다.

(배석 김청환 직원) 그렇다고 하다.
(* 법인사무국 관리과 김청환 직원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한규진 교무처장이 17:42에 이사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재배석하다.)

(이사 성차용) 전공심화 과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원이 차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지 묻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 발전방향은 전공심화 과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다. 전공심화 과정 학생 수는 3학년 91명, 4학년 54명의 인원이 재학 중이고 그 정도 인원은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인원이다. 정밀기계공학과 9명, 총포광학과 3학년 24명, 4학년 29명, 사회복지학과 3학년 22명, 4학년 16명이 재학 중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다. 현재 적립금도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현재 학생 수가 약 145명인데 수업료를 계산해보면 약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다.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62명인 것 같다고 하다. 현재 전임교원은 몇 명인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 전임교원 57명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신규교원의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현재 비정년트랙의 연봉은 3천에서 4천 사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전공심화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편제정원에 맞춰 교원 신규임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다.

(배석 한규진 교무처장) 입학 홍보 차원에서 신규진입 한 4개 학과 중에 3개 학과가 신입생을 100% 채웠다고 하다.

이사 엄정섭 이사 김태성 이사

(이사 김대성) 편제정원 기준 대학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50%, 학과는 60%라고 하다. 과거 재정지원제한대학이 걸린 것이 전임교원확보율 미달이 큰 이유인데 기준이 54%였다고 하다. 지금도 50%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교육부 정책이고 기본적인 지표값이며 해당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다. 그래서 전공심화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니 6명을 신규임용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 부분을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공심화 승인 이후의 과정이 모두 흔들리게 되어있다고 하다. 학생 모집 후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묻다. 그 부분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공심화 운영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는 상관없다고 하다. 심화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것이 바로 행정적 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다.
(* 한규진 교무처장이 추가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전체 이사 동의하에 17:52에 정회하고 18:00에 회의를 속회하다.)
(* 여태성 행정처장이 18:00에 추가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2024년 4월 24일 교무위원회에서 대학 보안업무 규정 개정(안)과 대학 업무용차량 관리운영 제정(안)이 상정되었고 위원 중 한 분이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원 전체가 동의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예산은 전체 운영비에 잡혀있고, 세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총액으로 잡혀있었다고 말하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또한 발전기금은 2억 7천 6백만원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발전기금 사용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묻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배석 여태성 행정처장) 이 재원을 2025학년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여태성 행정처장이 추가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이사	양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설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를 표명해주셨던 안건을 정리하겠다고 하다. 가결은 제3호 중등학교 교원 임용(휴직, 복직, 명예퇴직) 동의(안), 제9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휴직 동의(안), 제28호 교육용기본재산(차량운반구) 불용 및 폐기(안)과 제29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이며, 이 안건은 모두 찬성해주었다고 말하다. 동의를 구하다.

(전 체 이 사) 동의하다.
(* 이사들 각각에 대해 동의 절차를 밟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제3호, 제9호, 제28호, 제29호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중등학교 교원 임용(휴직, 복직 및 명예퇴직) 동의(안): 가결**

1) 중등학교 교원 휴직

■ 대상자: 총 2명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대전중앙고등학교	오	교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2025.03.01.~2026.02.28	2025.03.01
대전중앙고등학교	김	교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2025.05.03.~2026.02.28	2025.05.03
대전중앙고등학교	정	교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2025.05.12.~2026.02.28	2025.05.12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김	교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2025.03.01.~2026.02.28	2025.03.01

2) 중등학교 교원 복직

■ 대상자: 총 2명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박	교사	복직을 명함. ※ 육아휴직기간: 2024.08.20.~2025.02.28	2025.03.0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김	교사	복직을 명함. ※ 육아휴직기간: 2023.04.25.~2025.02.28	2025.03.01

3) 중등학교 교원 명예퇴직

■ 대상자: 총 1명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대전중앙고등학교	신	교사	명예퇴직	2025.02.28

★ 제9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휴직 동의(안): **가결**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대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김	부교수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 2025.04.22.~2025.08.11	2025.04.22

★ 제28호. 교육용기본재산(차량운반구) 불용 및 폐기(안): **가결**

차 량	등급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용 도	이용년수	비고
80노4909	5등급	03.12.30	8,200,000	중형화물(4륜, 덤프)	21년3월	
87누9022	5등급	08.07.14	9,900,000	소형화물(봉고,1톤)	16년8월	
56누9528	4등급	11.12.07	31,802,720	대형승용(카니발)	13년3월	

★ 제29호. 2024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가결**

(단위: 원)

구분	최종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결산	31,796,167,000	31,796,167,000	31,428,987,124	28,424,670,349	3,004,316,775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리고 보류는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승진임용 동의(안), 제8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 임용 동의(안)인데 이 안건은 임금 소송결과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해주었다고 하다. 그리고 제30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안)은 법적처분 결과 이후에 재상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다. 동의를 구하다.

(전 체 이 사)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제7호, 제8호 및 제30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승진임용 동의(안): **보류**
★ 제8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정년보장교원 임용 동의(안): **보류**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 제30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제 제1호 안건부터 하나씩 진행하겠다고 하다. 제1호의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 시켜주기를 바라고 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사께서 들어가 주시거나 추천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대하신 이사께서 책임을 지셔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예비순위에서 보충을 하던지 새로운 위원을 뽑자고 제안하다.

(이사 강경래, 김태근, 성차용) 부결을 원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렇다면 재심이 법적인 구제절차인데 부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하다. 진작 구성했어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이라도 구성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하다. 재심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놓친 사항이 있다고 하다. 지금이라고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심위원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구제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원으로 보면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성 을 해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화해조정을 받은 사람을 다시 해임시키는 것이 맞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해당자가 법적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징계사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징계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화해조정을 해놓고 해임처분을 한 것이 말이 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화해조정과 징계처분은 별개라고 하다. 구제절차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주셔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제1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의 의견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이사의 의견도 밝히기를 제안하다.
(* 김대성, 김조용, 이정민, 임정섭 이사는 제1호 안건에 찬성의견을 밝히다.)
(*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성차용 이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성차용, 김태근, 강경래 이사께서 반대하여 제1호 법인 제규정 위원회 재구성 및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호. 법인 제규정 위원회 재구성 및 임명 동의(안): 부결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교과 채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국어교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가결시켜주시고, 국어과목은 관할청에 의뢰하여 감사 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묻다. 그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전체 교과에 대한 감사를 받으라고 하다. 그 결과에 따라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다.

(이사 강경래) 동의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은 부결하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절차상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니 11개 교과 중 10개 교과는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국어 한 분야는 교육청에 의뢰를 하여 감사를 받든 조사를 받든 해서 관련 부서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관할청에 논의하고 차후에 정하자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국어교과만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교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렇게 하자고 하다.

(이사 성차용, 강경래) 본인은 반대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다. 관할청에 심도 있게 요청하고 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하다. 참석이사 5인이 보류에 찬성하였으므로 제2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은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다.

★ 제2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보류

(이사 성차용) 알아보고 점수 다 확인해보았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이 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신지 묻다.

(이사 성차용) 본인은 무조건 부결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은 가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일부 이사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할청에 심도 있게 감사를 요청하고 알아보겠다는 의견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외에도 임의대로 발표를 진행하지 않았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아직 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확정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감사 또는 관련 논의 요청을 하고 차후에 진행하겠다고 하다. 이어서 제4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다.

(이사 김태근)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편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다. 이에

따라 부결의 의견을 말하다. 편제 인원에 맞춰서 전임교원을 선발해야 하는지 찾아봤더니 기준은 똑같이 재학생 기준이라고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원이 넘치는 상황이니 필요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전공심화는 겸무가 불가하고 해당 학과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다. 전공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묻다. 교원은 42명만 있어도 되는데 교원을 증원해서 학교 예산을 소진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다. 추가로 신규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다. 편제정원이 아니고 재학생 기준으로 해도 되니 신규임용은 불가하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김태근, 강경래) 부결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전공심화 학생들은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교수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왜 뽑아놨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그것을 왜 뽑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학의 장이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뽑고, 왜 만드냐고 하는 것은 학사관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심화과정 운영하는데 편제정원으로 교원을 선발해야한다고 하여 재학생 기준으로 해도 충분하니 충분한 기준 속에서 운영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다. 본인이 언제 전공심화 과정을 폐지하라고 했냐고 하다. 말을 만들지 말라고 하다. 본인은 학사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전공이 불일치되는데 어떻게 총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공이 불일치되는 교수를 배치할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총장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다. 교원 월급이 나가는데 대학과 법인이 망하라는 의견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처리하고 어떤 것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의장(이사장: 임정섭) 잔여 안건을 모두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의사봉을 뺐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이사회를 파행시키지 말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보류해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학과 소속변경 동의(안)은 찬성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아니라고 하다. 학과 소속변경 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렇게 되면 대학의 학사행정이 마비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학과 소속변경은 본인이 알기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윽박질러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부결한다고 하다.

(이사 강경래) 부결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학사가 운영되기 전에 안건이 다 올라왔던 것인데, 3월 1일 수업시작 이전에 부결이라고 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다. 하지만 이사회가 지금까지 밀려왔고 학사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다. 이번주가 중간고사이고 이사회가 여지껏 진행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이사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 전에 안된다고 했으면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다.

(이사 성차용)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를 못했으면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사장이 이사회를 할 수 있게끔 조율해야하는 것 아닌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김대성) 이사장의 부덕이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난 3년 동안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면 했던 얘기는 임정섭 이사장 내려가라, 김대성 총장 내려가라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문제가 있으면 내려가야 한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학생들과 교원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 이사회에서 가결을 하고 재차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과 절차를 밟아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소속변경은 이야기가 사전에 되었고 일단 학기가 개시됐으니 먼저 동의를 해주시게 어떤지 제안하다.

(이사 성차용)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학과 구조조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통과를 시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안하다.

(이사 김대성) 이번 주가 중간고사라고 하다. 학과 소속변경,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이 진행됐으니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한다고 하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제5호 안건은 2026학년도 학과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이사 김대성) 신규임용 교원도 현재 15시수를 모두 진행하고 있고 이 학생들의 학점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이사 성차용) 그럼 보류하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보류하자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제4호 안건은 아니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하다. 그리고 의사봉 반환을 요청하다.

(이사 김대성) 신규임용은 소속변경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새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이사 이정민) 신규임용의 임용 발령을 짧게 가져갈 수는 없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불가하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신입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이정민 이사의 말도 맞는 말이 있으나 어느 학과는 넘치고 어느 학과는 비어있으니 이것을 상쇄하면 된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남는 학과의 교원을 재배치하자는 말로 들린다고 하다. 그것은 당장은 불가능하지 않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교원확보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인원을 채용해서 교원을 새로 뽑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연봉이 3천에서 4천 사이 라고 하지만 교수가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등이 필요해서 금액이 커진다고 하다. 본인이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교수가 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2억 정도가 된다고 하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전공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다.

(이사 이정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필요한 학과에 재적응을 해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야될 것 같다고 하다.

(* 김대성이사가 18:43에 회의장을 퇴실하다.)
(* 김호겸처장이 18:44에 안건설명을 위해 재배석하여 설명하다.)

(이사 성차용) 해고예고수당은 법인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총장직속의 별도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고 해당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다.

(* 김호겸 처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퇴실하다.)
(* 전체이사의 동의 하에 18:48에 정회하고, 19:43에 속회하다.)
(* 김조용이사가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히며 일신상의 이유로 19:14에 회의장을 퇴장하다.)
(* 이정민이사가 이사 전원에 양해를 구하고 회의진행이 불가함을 확인한 후 퇴장 의사를 밝히다.)

(이사 김태근) 가결한 것은 말하고 가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어디까지 의견을 준것인지 이정민 이사에 묻다.

(이사 이정민) 처음에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중고등학교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묻다.

(이사 이정민) 가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가결 되었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그 부분은 회의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의결여부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 이정민 이사가 19:20에 회의장을 퇴장하다.)
(* 김대성 이사가 19:20에 회의장에 재입실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정민 이사께서 앞서 논의된 안건까지만 의견을 밝히고 퇴장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학사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다.

(이사 성차용) 초빙교원으로 채용하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계약서 챙겨달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학사 운영이 파행이 되면 신규 교원 채용의 문제도 있지만 전공심화 과정의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다. 학사 운영이 될 수가 없고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다. 학기 개시 전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완이 가능 했을텐데 이것을 단순히 부결, 가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다. 이유를 말씀드렸다고 하다. 중고등학교 예산은 중요하고 아까 가결 했으니 통과하자고 하다.

(이사 김대성) 중고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가부여부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모두 의결시켜 달라고 하다. 다시 정리하겠다고 하다. 가결이 제3호, 제19호, 제28호, 제29호이고 보류는 제7호, 제8호, 제30호라고 하다. 제1호 안건부터 하는 중에 이렇게 됐다고 하다.
(* 김대성 이사가 19:27에 회의장을 퇴장하다.)

(이사 김태근) 중고등학교는 예결산을 안해주신다는 것인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모두 해야한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19:28에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하 사무관과 통화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다.

(이사 김태근) 안건번호를 말하며 가결여부를 선언하지 않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가결이 제3호, 제9호, 제28호, 제29호이고 보류는 제7호, 제8호, 제30호라고 하다. 제1호 안건부터 하는 중에 대학 안건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다.

(이사 김태근) 중고등학교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언제 가결되었는지 묻다. 가결을 선포한 적은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가결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다. 중고등학교 망해도 되는지 묻다. 중고등학교는 일단 가야되지 않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반대로 대학은 망해도 되는지 묻다. 대학에서 교수 채용 절차를 승인받아서 채용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교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뽑아야지 누구 맘대로 뽑냐고 하다.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모두 교원확보율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 분들이 왜 몰랐냐고 하다. 다 알고 있다고 하다.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하다.

라.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을 포함하여 간서명은 김대성, 성차용 이사가 진행하자고 말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 2025.04.21.(월) 19:45 폐회)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2025.04.21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임 정 섭	(서명)
	이 사	강 경 래	(서명)
	이 사	김 대 성	(서명)
	이 사	김 조 용	(서명)
	이 사	김 태 근	(서명)
	이 사	김 현 리	(서명)
	이 사	이 정 민	(서명)
	이 사	성 차 용	(서명)
	감 사	조 현 준	(서명)
	감 사	황 인 상	(서명)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제2회 이사회 참석(출석) 현황

1. 회의일시: 2025.04.21.(월) 10:00, 정곡관10층 소회의실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2. 참석현황:

소속	성명	서명	비고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장	임정섭	임정섭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강경래	강경래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김대성	김대성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김조용	김조용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김태근	김태근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김현리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이정민	이정민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	성차용	성차용	
학교법인창성학원 감사	황인상	황인상	
학교법인창성학원 감사	조현준	조현준	